

한전공대 “수능 내신 반영없이 자체 전형으로 학생 선발”

신입생 선발전형 요강 늦어도 내년 5월전에 공개
윤의준 설립위원장 “합숙하며 문제 해결 능력 검증”
“아빠·엄마 찬스 통하지 않는 공정 선발 기준 마련”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미국의 ‘프랭클린더블 유올린공과대학(올린공대)’처럼 학생을 자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 후보자인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은 26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수능과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선발기준

을 마련해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올린공대를 비롯해 외국 우수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참조해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인재 선발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입생 선발전형 요강은 늦어도 내년 5월까

지는 완성해 공개한다는 게 목표이다.
한전에너지공대는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합숙 캠프 등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자칫 공정성과 특혜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위 아빠·엄마 찬스가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고, 어떤 학생을 선발해서 키울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내년 5월이 되면 한국에너지

공대가 어떤 학생을 뽑아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그림을 완성해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기존 대학의 틀을 깨는 새로운 대학이 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인데 반해 한국에너지공대는 학생들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야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기초 역량을 쌓는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며 “이런 능력을 갖추게끔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공과대학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아보겠다. 우리 자식을 보내겠다는 마음

이 우리나라계급 교과 과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이 밝힌 ‘자체 신입생 선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설립된다.
대학과 연계한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협력센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김민정기자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에서 26일 해양경찰교육원 제41기 신입 해양경찰 학생들이 바다에 직접 발을 담그고 해양경찰로서 다짐을 발표하는 입해식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교육원 제공)

해양경찰교육원, 신입 해경 학생 ‘입해식’

바다에 첫 발 담근 특별한 첫수업
여수 모사금 해수욕장 750명 입수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은 26일 오전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에서 241기 신입 해양경찰 학생 750여 명이 바다에 직접 발

을 담그고 다짐을 발표하는 입해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원을 나누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해식은 바닷가에서 일렬로 나열한 학생들이 바다를 향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외침 후 “국민을 위한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명상을 순차적

으로 가졌다.
또 입해식을 마친 학생들은 모사금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을 가졌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발을 내딛는 신입 해양경찰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에 강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양성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41기 학생들은 지난 10일 입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 독감백신 이상반응 39건 접수...1명 사망

“건강상태 좋은 날 접종해야”

광주지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1명이 숨지는 등 총 39건의 이상신고가 접수됐다.(관련기사 8면)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뒤 1명 사망 등 총 39건의 이상 증세가 있다고 신고됐다.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지난 19일 복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백신을 맞았으며 3일 만인 지난 22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기동취재본부

38건의 이상 증상은 모두 경증으로 발열과 주사부위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날부터 62세-69세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사망과 독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독감 백신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접종해야 한다”며 “혼잡을 피하고 잠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빛 5호기 원자로 정지...“방사선량 평시 수준”

26일 한빛원자력발전소 5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발전소 내 방사선량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파견해 상세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빛 5호기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현장에 설치된 지역 사무소를 통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

사단을 파견해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빛 5호기는 원안위가 지난 5일 임계를 허용한 뒤 후속 정기 검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원안위는 “현재 한빛 5호기는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기 검사 도중 발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정기 검사를 마칠 것이다”고 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비가 날아오고 새들이 지저귀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핀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